

후기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뉴스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진소연(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본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후기청소년의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하나의 교육 방안으로서 뉴스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에 주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된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였다. 뉴스리터러시는 뉴스에 대한 접근/이용/활용능력 등을 의미하는데, 미디어리터러시 및 정보리터러시 등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미디어 정보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력'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비판적 사고력이 바탕이 된 뉴스 소비 과정은 후기청소년이 한 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에 유용한 활동이 된다. 본 연구가 후기청소년에 주목한 이유는 불확실한 취업과 결혼 등으로 독립 연령이 늦춰져 학업이 연장된 위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이 들임에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 교육이 미흡하고 대학생이라는 신분에 속하지만 국가 교육 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뉴스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ADDIE모형(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특히 후기청소년 대상 요구분석이 매우 중요한 단계로 고려되었다. 대다수의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학습 환경과 교육자의 의견 및 생각 등의 요구가 반영되어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습자가 기대하는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라는 판단에 학습자인 후기청소년의 요구 파악을 최우선적으로 한 후,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가 지향하는 능동적인 참여형 수업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후기청소년 대상 뉴스 및 뉴스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후기청소년이 기대하는 뉴스 교육 목표와 부합되도록 체계적인 각 단계에 따라 4회차 분량의 1) 뉴스 이해 교육 2) 뉴스 분석 교육 3) 뉴스 평가 교육 4) 뉴스 생산과 책임 교육 과정을 마련하였다.

개발된 뉴스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을 90명의 후기청소년들에게 실행하고 교육 효과를 확인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적 뉴스 이용 빈도와 이용량은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뉴스리터러시 수

준, 디지털시민성, 의사소통역량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양적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중요한 점은 뉴스리터러시 수준의 하위 영역들 중 비판적 사고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별적 이용 능력의 향상 폭이 가장 컸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 뉴스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이 분별적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과 다양한 활동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개발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후기청소년이 그 지위를 인정받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